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말씀: 마태복음 15:1-28

요절: 마태복음 15:19,20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말씀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잡습니다. 후반부는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 종교지도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해 보였지만 내면은 악했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율법도 모르는 부정한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내면이 선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인정하지 않으셨지만,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원어에 보면 “메가스 피스티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우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여인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마음을 깨끗이 하라(1-20)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아와 트집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아서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코로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큰일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단계 더 나아가서 손 씻지 않는 문제를 위생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범죄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3) 그들이 자랑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전통입니다. ‘고르반’은 헌물이란 뜻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본래 장로들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한 것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지만, 빚을 지거나 사업에 실패해서 집안 물건을 압류당하면 서원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이것이 고르반 제도를 만든 취지입니다. 아주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르반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운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포도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많은 올해에도 많은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런 그에게는 공양해야 할 늙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밭에서 얻은 소출을 부모님에게 드려서 봉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소출을 부모에게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소출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선언한 후에 언제까지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선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교묘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외식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지적하셨습니다.

7,8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이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당시 종교지도자들은 말은 청산유수로 잘 했습니다. 어릴때부터 배운 율법의 지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계명으로 잘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마음은 자신들의 명예와 물질, 인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입술신앙이 아니라 마음신앙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6:5절에서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없이 입으로만 섬기는 것은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들어간 음식은 뒤로 나오기 때문에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이 고상한가, 더러운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의 근원이 되는 생각이 사람을 오염시킵니다. 그러므로 정말 깨끗이 해야 할 것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19,20절 요절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겉으로는 고상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인합니다. ‘저사람 없어졌으면 좋겠어~’ 마음으로 간음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인터넷과 온라인을 보면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온갖 악플을 달아서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도를 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음과 음란은 갈수록 심해집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들여 놓습니다. 돈을 벌수만 있다면 별의 별 악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팔아 먹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19 바이러스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센터에서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대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바이러스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악한 생각 바이러스입니다. 악한 생각은 파괴력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전염성이 너무나 강해서 금방 퍼집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처럼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손을 씻는 다양한 세정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는 세정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을 씻는 세정제는 ‘예수

님의 보혈의 피'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를 회개할 때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히브리서 9: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은혜를 묵상할 때 성령께서 죄로 죽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깨끗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찬송가 268장)”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깨끗함을 덧입어서 깨끗한 양심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네 믿음이 크도다(21-28)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를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실 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구약에서 가장 악명이 높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알 우상숭배의 본거지입니다. 그런 지역 출신 이면 말만 들어도 부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별칭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영접했습니다. 앞에 나온 종교지도자들은 성경지식도 많고 겉은 아주 거룩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시기심과 미움, 살인감정,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이적을 봤지만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도의 소굴과 같았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여인은 외적으로 부정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딸에 대한 애타는 심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여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못 본체하고 썩~하고 그냥 지나치려 하셨습니다. 여인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여인은 이런 예수님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며 간구했습니다.

제자들이 듣다가 참지 못하고 여자가 소리를 계속 지르오니 불쌍해서라도 아니면 시끄러워서라도 보내시도록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지 이방인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절을 넘어서 차별에 가까웠습니다. 이전에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나 병자도 받아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나와도 “소자야” “my

son”하시며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앓은 부정한 여인이 뒤로 와서 옷가를 만졌을 때도 “딸아” “my daughter” 하시며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매정하게 대하시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을 차별하실려면 두로와 시돈지방에 가지지나 말지, 그곳에 가셨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인은 이에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여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셔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여전히 확신하고 있습니다. 절을 하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니 얼마나 짝잡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26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본문을 읽는 우리가 힘들어질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서 헛소리를 하시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개라는 말까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상처가 많은 여인에게 비수를 쏘는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족만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은 개 취급하시는가 하는 반발심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훈련치고는 너무 과합니다.

어쨌든 여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상처를 받고 돌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인터넷에다가 예수님에 대한 온갖 비방, 악플, 괴담을 올려서 개판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어떤 자세로 나왔습니까?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옹소이다미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니이다 하니”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주여 옹소이다미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니이다 하니’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잠언25: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은 너무나 재치가 있어서 은쟁반에 금사과 정도가 아니라 진주 쟁반에 다이아몬드 사과같은 레벨이 다른 엄청난 말을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이번에도 ‘주여’ ‘Lord’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주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급하고 아쉬우니까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침묵하시고, 세번째 개취급을 하시는데도 그런때도 ‘주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을 ‘주여~’ ‘Lord~’라고 말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인이 주권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아쉽고, 내가 이해가 될때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목자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되고 도저히 영접이 안되면 화가 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고 뭐고, 목자님이고 뭐고’ 그냥 험한 말들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변함없이 ‘주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여인에게서 배울 것은 주권신앙입니다(Lordship).

“주여, 옹소이다” “Yes, Lord” “예, 제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인정이요, 강한 긍정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자로 취급하시든,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든, 그것을 받아들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잘해 주셔도 ‘주여’ 무관심한 것 같아도 ‘주여’ 나를 비참한 지경으로 몰아넣어도 변함없이 ‘주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요, 참된 주권신앙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항상 좋은 말만 듣고, 항상 좋은 사람만 만나고, 항상 꽃길만 걷던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신앙의 위인 중 욥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가 아끼던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식들,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계속 짝는 소리만 합니다. 개 정도가 아니라 벌레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힘들어서 욥기 23:8,9절에 보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모든 사람이 욥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아내 동역자도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로 상황이 이해가 안되고 심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왜 이러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바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시고, 목을 조르시고, 죽을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를 순금같이 빚어 만들고자 이런 연단을 주시는구나’ 욥은 자신은 비교적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련을 통해 불순물이 너무나 많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는 의인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불순물이 많고 불결한 죄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순금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뒤로는 욥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침묵하시는가? 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를 이처럼 비참하게 만드시는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반발하기보다 주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순수케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영접해야 하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주여, 제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이처럼 주권신앙을 가질 때 주님은 내 마음에 겸손을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상처 받지 않고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감지덕지 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부스러기의 은혜만 주셔도 자신의 딸이 능히 낫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라면 떡덩이든 떡 부스러기든, 상위에 떡이든, 상아래 떡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얼마나 겸손하면서도 긍정적이고 진취적입니까?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에 의해 주어진 신분을 신이 정해준 것이라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카스트 제도는 네 개의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가촉민(하리잔)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길에 침을 뱉을 수도 없고, 공동우물에서 물을 떠낼 수도 없고, 걸어온 자기 발자국도 남길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지우기 위해서 항상 작은 빗자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에게 주어진 힘들고 고달픈 한 가지 일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숙명을 자식과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숙명론은 하나님의 주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시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엡2:10) 각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은 여인을 끝까지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테스트가 끝나자 여인의 믿음을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You have great faith” “오, 귀나이 메갈레 수 헤 피스티스” “오! 여자여, 메기톤급의 믿음이로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믿음, 분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는 믿음. 어떤 아픔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 아무리 짓밟아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위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극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소원대로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네 소원대로 되라” 그러자 그 즉시 딸이 나왔습니다. 여인은 단지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는데 예수님은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은혜,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 시대에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인처럼 주님께 나아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한 말씀이라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말씀 한 절이라도 암송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 잊고 지내던 한 양이라도 연락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성경 한 장이라도 매일 같이 읽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부가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무릎 꿇고 합심기도 하게 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에게 관심을 갖고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부스러기와 같지만 주님은 이를 기뻐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같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겸손, 끝까지 포기치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임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에 힘씀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가나안 여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영접하고 부스러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면서도 끈질긴 믿음, 분수를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치 않는 믿음. 어떤 아픔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믿음. 아무리 짓밟아도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을학기,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